

# 전남교육청, 광양햇살학교 당선작 선정

### 23학급 규모 신축 2022년 3월 개교 예정 지역과 함께 성장·교류 학생중심 공간 혁신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순천 특수학교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신설했는 (가칭)광양햇살학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조달청에 요청해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가)종합건축사사무소팀의 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학교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교류해 사회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 건축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칭)광양햇살학교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23학급 146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2022년 3월 개교예정이다. 광양시 옥룡면 옛 옥룡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 298억 원이 투입된다.

이 건물은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 지향적 특수학교 모델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에너지효율1등급, 녹색건축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등의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열린 교육 공간으로 마을사랑방, 주민카페, 역사관,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시청각실, 강당, 전차차 충전기 등이 설치된다.

또한,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중심·체험중심의 공간혁신 개념을 도입해 기존 학교를 벗어난 공간이 구축된다. 학생중심의 감성적 교실, 가고 싶은 화장실, 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 감성과 창의 배움 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사고력 증진 등 미래 역량을 키우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0년 6월까지 거 건축설계와 이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주서 제16회 전남교육음악제 열려

제16회 전남교육음악제가 11월 25일, 호남의 중심·천년고도 목서고을인 나주에서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제는 올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나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임희숙 회장은 백범 김구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인용하면서 세계인류가 우리 민족 문화를 사모하도록 교육의 힘을 모으자고 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 교육감은 축하의 글에서 '나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역사성에 비추며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교육을 위해 열정을 가진 멀리 섬지역에서부터 가까운 지역 선생님들이 주말시간을 쪼개어 만남과 화합으로 준비하여 수준 높은 노래와 연주를 들려줘 교육가족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나주 빛가람중학교 '빛가람

컨타빌레 오케스트라'의 차이코프스키와 아리랑랩소디 협주를 시작으로 아가펠라, Two 피아노, 남성중창, 피아노 5중주, 교원합창, 보컬밴드 등 다채롭게 이뤄졌다.

특히, 경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와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남부대학교 신동민 교수의 창작곡 '독립운동가의 어록'을 남성복 사중창으로 노래했다. 온 몸을 던져 이 나라의 애국과 독립을 스스로 실천하셨던 9명 열사(안창호, 이화영, 김구, 유관순, 손병희, 박열, 윤봉길, 강우규, 안중근)의 어록의 내용을 노래하였는데, 3·1절 100주년을 주제로 연주되는 음악제의 의미에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감동과 함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전남교육음악제는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과 끼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학생들간의 배려와 소통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음악 교원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발표하는 장으로 매년 전 췌 교육가족의 뜨거운 참여와 열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 정남진산업고 김진우, 최다 자격증 취득



독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실습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남진 재능나눔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주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교 학생회장에도 당선되어 교내 행사와 학교 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하기도 했다.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기계자동차과 3학년 김진우 군이 52개의 다자격증을 취득하여 역대 전국 고등학생 최다 자격증 취득을 갱신했다. 2017년 정남진산업고 기계자동차과 졸업생인 김은재 군이 52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국 고등학생 최다 자격증을 갱신했던 이후 최다 자격증 취득을 다시 갱신했다.

김 군은 3년 동안 방과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동차 정비, 농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기중기 등 자동차·건설기계와 컴퓨터 분야에서 5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기계자동차과 교육과정에는 자격증만을 취득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실습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남진 재능나눔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주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교 학생회장에도 당선되어 교내 행사와 학교 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하기도 했다.

김 군은 1학년 때부터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도우미, 컴퓨터지도, 체험활동 등의 재능나눔 봉사와 학교에서 배운 용접을 농어촌에서 기자재 용접봉사를 실시하였고, 3년 동안 383회, 1,121시간의 재능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2018년 전남청소년자원봉사대회 여성가족부장관상, 2019년 인당봉사상 대상, 2019년 21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3년 동안 기능을 연마하여 2019년 전남기능경기대회 자동차체수리 부문에서 금메달, 2018년 자동차체수리 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기능영재이기도 하다.



## 나주교육청, 해외문화체험 성과 보고회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나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와 관계자 약 60명을 모시고 '2019. 해외문화체험학습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9. 내고장 자랑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총 41명(초21, 중20)을 대상으로 금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다니면서 체험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나주다시중학교 김○○ 학생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 함께 체험활동을 하였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고 하였다.

남평중등학교 박지민선생님은 "이번 해외문화체험학습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학생들 생각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김영길 교육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 장석웅 교육감, '학교 활성화' 의견 수렴

### 여수중 방문해 의견 수렴 원도심 학교 지원 현황 경청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18일 오후 여수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만나 원도심학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경청올레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 자율혁신학교 운영의 어려움 △ 교육복지사업 확대 운영 △ 원도심 근무 가산점 부여 △ 열악한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원도심학교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가정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생활지도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면서, 학교 부처용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학교운영위원장장은 "의사가 오진하면 1명만 잘못되지만, 교사가 잘못하면 반 전체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말이 있다."며 "교사가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이 바로 서야 하고,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원도심학교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반영해 원도심학교가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원도심학교 활성화 및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장선생님의 민주적 리더십과 교사들의 자발성과 열정 뿐."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